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사순 시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개인당 사순 애공함을 가져 가셔서 단식과 금육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사무당당의 사정으로 인해, 판공성사표가 다음주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이번주부터 미사전후로 판공성사를 보신 후, 판공성사 기록표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특강 안내

- 일시- 3/19 (금) 저녁 7시 30분 평일미사 후
- 3/20 (토) 저녁 7시 30분
- 3/21 (일) 주일미사 후
- 장소: St. Leo 성당
- 강사: 뉴튼 수도회 원장 김동건 사무엘 신부님
- 신자분들께서는 사순특강에 참여하셔서 뜻깊은 부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주보 광고주 모집

-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본당 주보 개편을 위해 주보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호근 라파엘 (614-975-7732)
- 접수: 재정 위원회

◆ 성주간 예식 안내

- 성유 축성 미사
 - 일시: 3/30 (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Columbus 주교자 성당
- 성목요일 만찬미사 안내
 - 일시: 3/31 (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안내
 - 일시: 4/2 (금) 오후 3시
 - 장소: St. Leo 성당
- 성 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식 안내
 - 일시: 4/2 (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부활 성야 미사안내
 - 일시: 4/3 (토) 저녁 8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병자 봉성체 안내

-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해당 레지오 단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5,1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95.00
교 무 금	\$290.00
주보 광고비	\$250.00
사무용품 봉헌	\$300.00

- ◆ 교무금: 고상식, 김한식
- ◆ 주보광고비: Diaspora
- ◆ 성당사무용품 봉헌: 서태수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사순 제 1주일 February 21, 2010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11세기, 채색 삽화, 국립 박물관, 뉘른베르크, 독일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신명기 26,4-10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화답송

주 - 님 환란 가운데 -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8-13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루카 4,1-13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20단 3명	30,602단 23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20단 3명	22204-02/14/10(310주)

♣ 총누계: 225,590단 12,863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21/10	2/28/10	3/7/10	3/14/10
해설자	박귀영	고상식	안유신	박귀영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증거자의 모후	하늘의 셋별	바다의 별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16 ♫ 봉헌: 211
 ♫ 성체: 151, 152 ♫ 파견: 124

예수님께서서 유혹을 받으심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선교전례사목부

사순 제1주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서 유혹을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십일 동안 단식을 하시러 사막에 가십니다. 그 사막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백성과 다른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암시합니다. 이런 단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절대적 소명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를 마친 후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보다 굳건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빵에 대한 유혹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느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곧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힘은 자칫 인간의 교만과 결합하여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는 잘못된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곧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탄은 혹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맞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빵은 물질이고, 권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 빵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유복하게 살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주신 빵은 당신 몸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력에 대한 욕구에서 해방시켜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사건은 신앙인이 하느님께 순종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성체께 존경과 사랑을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안 내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파라델),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에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 장	연락처
십자가의 모후	김정일 그레고리오	614-496-3149
평화의 모후	정순화 발바라	614-873-2526
상지의 옥좌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하늘의 셋별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